

높은 四段의 層段이 있는 圓座形 위에 얹혀 있다. 身部の 形態는 公州 麻谷寺 五層石塔 頂上의 金銅相輪과 相似하여 上部가 擴張된 圓筒形인데 여가서 特異한 點은 前面에 圓形龕形이 開設된 點이다. 高·幅 3cm 程度의 小龕으로서 밑은 二·八cm의 幅으로 水平을 이루게 되어 있다. 龕室 內部는 空間을 이루어 全體의 中空과 그대로 連結되어 塔身에 圓孔을 뚫려 놓은 것 같다. 本來는 龕室開設의 意思에서였을 것이다. 이 龕形 上面에는 〇·五cm의 幅으로 半圓을 그리며 〇·三cm 乃至 〇·四cm 뒤어나오게 만들어 遮陽을 단 形狀을 나타내고 밑으로 쳐져서 左右에서 옆으로 튀어나온 角形 小突起가 附着되어 있다. 身部の 上面은 거의 平頂을 이룬 中央에 조그마한 方座를 얹고 그 위에 四面으로 斗출된 一邊 三cm의 星形이 놓여 露盤의 役割을 하고 있다. 그 위에는 下徑 二cm 上徑 〇·八cm의 十一節 圓錐形의 相輪이 얹히고 다시 下徑 二·五cm 高 一·一cm의 覆鉢形 寶蓋와 寶輪을 얹어 놓았다.

全高 二二·五cm, 基壇部 高 七·五cm, 同下幅 一二cm, 身部 高 四·五cm 同上徑 六·五cm의 이 조그마한 塔形은 部分的으로 形態上의 差異 또는 表面彫飾에 差異가 있다고 하지만 金東鉉氏所藏 金銅舍利塔①과 類似함을 볼 수 있고 아직까지 알려진 其他 諸例②와도 類似함을 볼 수 있다.

이 塔形의 外形이 一見하여 高麗末期 元朝服屬下에서 그 佛敎文物의 流入으로 因하여 傳來된 囉嘛塔 樣式의 影響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樣式의 流行을 보게 되어 方形石塔 위에 一部樣式으로서 導入되고 이 系流를 따른 舍利塔 等이 만들어졌다고 생각된다.

이 塔의 形態와 같은 囉嘛系塔을 찾아 보면 元世祖 十六年(西紀 一二七九)에 建立하였다는 河北省 北京所在 妙應寺白塔을 들 수 있는데 各部 構造가 龕形開設以外는 거의 同一함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塔形의 傳來經緯가 밝혀졌더라면 하는 愛惜한 感이 한층 더 하다.

註

① 黃壽永·高麗 金銅舍利塔과 靑瓷壺(本誌 第三卷 第一號)

② 前記 論文中에 例示한 諸例參照

高麗 靑銅梵鍾과 己酉銘 靑銅盤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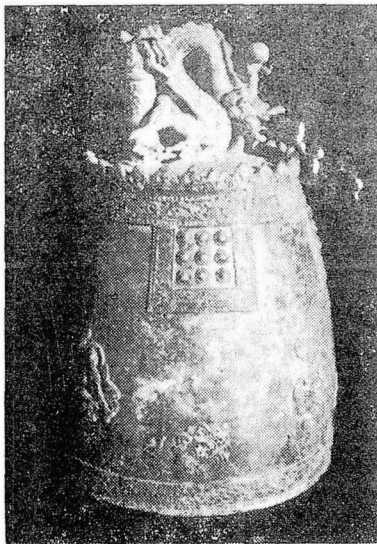
李 浩 官

一九六六年 一月十三日과 十七日頃에 京畿道 漣川郡 百鶴面 元堂里에 서 尹泰鎭 尹錫鎭 兩氏에 依해 古鐵을 蒐集하다가 出土된 靑銅梵鍾 一口와 己酉銘 靑銅盤子 一個를 간단히 紹介하고자 한다.

一、靑銅梵鍾

鍾의 發見은 一九六六年 一月十七日頃 漣川郡 百鶴面 元堂三里部落에 서 約五〇〇m 정도 거리의 營農地域內에서 地表로부터 四尺五寸 정도 깊이에서 發見되었다고 하며 發見된 場所를 部落의 古老들의 말에 의하면 옛날부터 이곳을 「탐두들」이라 일컫으며 現在도 이곳에는 塔材 비슷한 石材가 地下에 묻혀 있다고 한다.

鍾은 全高 三七cm(龍紐 一〇·五cm 包含) 口徑 一三·五cm 鍾口 두께 一·五cm의 小鍾에 不過하지만 鍾身의 形態와 흘러내린 曲線 그리고 龍紐 甬筒 等 鍾頂部의 意匠을 살펴보면 아담한 高麗梵鍾에서 가지는 基本的인 樣式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近來에 出土된 鍾類의 銅鍾보다 優秀하



고 完全한 通型의 小鍾으로서 甬筒에 붙어 있는 龍紐의 彫刻은 刻明하고 甬筒에는 四珠가 남아 있고 一部가 약간 파손되어 있을 뿐이다. 鍾肩 上緣에는 三角形으로 된 立狀 蓮花紋 二六瓣이 돌

러 있으나 他類例와 같이 唐草文 등을 刻한 것이 아니고 忍冬紋에 가까운 紋樣으로 되어 있는 것이 特徵이며 上下帶에는 二線內에 唐草文을 둘러 있다. 그리고 鍾腹에는 優秀한 彫刻手法으로 浮彫된 各各 四個씩의 撞座와 飛天像을 交互로 갖고 있으며 다른 青銅小鍾의 例와는 달리 線刻이나 淺刻으로 된 撞座나 飛天이 아니고 뚜렷한 彫刻으로 三—四mm 나 튀어나온 浮彫된 것이 注目된다. 撞座는 六瓣의 蓮花紋으로서 各花瓣마다 子葉三個씩을 갖고 있는 花紋으로 되어 있고 子房도 또한 八葉으로 둘러싸인 것이 特異하다.

특히 飛天像은 머리에 寶冠을 쓰고 있는 形態나 後光을 갖고 있는 모습이나 그 衣紋 등이 매우 鮮明하며 鑄造時부터 몹시 正성들여 彫刻하여 製作한 흔적이 優秀하게 나타나고 있다.

乳廓은 圓形 받침의 또렷 또렷한 九乳頭를 廓內에 갖고 四處에 同一한 격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乳廓 역시 唐草文으로 새겨져 있다. 다만 遺憾되는 것은 鍾體에 銘文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있어 그 製作年代를 正確히 파악할 수 없으나 近來까지出土되어 紹介된 것中 江原道 橫城出土 青銅小鍾^① 京畿道 楊平郡 龍門山廢寺址出土銅鍾^② 全南道 康津郡大口面 沙堂里出土 己酉銘 青銅梵鍾(高麗恭愍王十八年 西紀一二六九年)^③ 과 비교하여 볼 때 本鍾은 이들보다 形態나 製作手法이나 意匠이 훨씬 優秀하고 時代가 앞설 것으로 生覺되며 一九三五年 六月 黃海道 平山郡 新岩面 月峯里에서出土한 貞祐十一年銘 月峯寺 青銅梵鍾^④에 比較하여 볼 때 흡사한 點이 많으나 鍾肩上緣의 立狀蓮花紋의 모양과 上·下帶의 紋樣 鍾身의 形態 등에 있어 簡略化된 點이 많아 時代가 약간 떨어져 있다 고 보나 貞祐十一年은 高麗 高宗十年 西紀 一一三三年이므로 本鍾은 적어도 西紀一二三〇年代까지 내려오지 않은 高麗中期 即 十三世紀末頃으로 推定되는 鍾으로 본다.

- 註
- ① 拙稿·橫城出土青銅製小鍾(本誌六一—一九六五, 二)
 - ② 鄭永鎬·龍門山廢寺址出土高麗梵鍾(本誌六一七—一九六五, 七)
 - ③ 國立博物館刊·陳列品圖鑑(一九六五, 十二, 三十一)
 - ④ 博物館陳列品圖鑑第九集(一九三七年 朝鮮總督府博物館發行)

二、己酉銘 青銅盤子

盤子 역시 梵鍾과 同一하게 六六年一月十三日頃 漣川郡 百鶴面 元堂里 주랑산 남쪽 기슭에서 古鐵菟集時 地表에서 約四尺 정도의 깊이에서出土된 것으로 出土時에는 盤子와 더불어 瓦片이 多數나왔다고 한다. 盤子의 形態는 모두 우리나라 羅·麗 禁口의 一般形으로서 圓盤을 이루어 表面은 平坦하고 裏面의 口緣 등이 通式에 屬한다. 오랜 歲月 土中에 있던關係로 青銅가 덮여 있고 側面에는 兩耳가 달려 있다. 兩耳 사이에 鑄造時나 或은 後에 破損되어 다시 補繕한 흔적이 있을 뿐 거의 完全하며 表面은 太細三重線으로 둘러 있고 表面 內區에는 蓮花紋이 새겨 있다. 그리고 盤子에 나타나는 특별한 특징은 없으나 裏面周緣에는 다음과 같이 一行의 四四字句의 銘文이 刻하여 있는 것이 注目되어 銘文은 判讀가 능하다.

己酉七月 日大德資崇特爲聖壽天長師僧父母及法界衆生供證樂界願以造成納菩提寺盤子入重十三斤印

이 銘文에서 己酉는 高麗 高宗三十六年 西紀一二四九年, 忠宣王一年 西紀一二三〇九年 그리고 恭愍王十八年 西紀一二三六九年이 己酉年이며 李朝에 이르러서는 世宗十一年 西紀一四二九年이다. 그러나 盤子의 形態나 樣式으로 보아 製作年代가 李朝世宗十一年 西紀一四二九年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며 手法이 羅·麗 禁口의 一般形에 屬하므로 高麗 高宗代나 忠宣王代까지는 오르지 않고 麗末의 恭愍王十八年(西紀一三六九年) 己酉에 해당되지 않을까 生覺된다.

또한 銘文中에 나타나는 菩提寺에 對하여 東國輿地勝覽에 記錄된 것을 보면 卷八 京畿道 砥平縣(楊平)의 佛宇條에 菩提寺가 나오고 卷二十六 慶尙道 大丘縣(大邱)의 佛宇條에 菩提寺와 卷二十九 慶尙道 咸昌縣의 佛宇條의 菩提寺, 卷三十一 慶尙道 宜寧縣 佛宇條에 菩提寺가 나타나고 있을 뿐 輿地勝覽卷十三, 京畿道 漣川縣에는 菩提寺가 없으며 다만 五峯寺라는 寺刹記錄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記錄中에서 京畿道 漣川郡과 가장 가까운 곳이 砥平, 即 楊平地方이므로 或時이 地方의 菩提寺에서 使用하던 盤子가 어떤

연유로 因해 後에 漣川地方의 寺刹로 移轉되어 使用하던 것이 아닌가 生覺된다.

그리고 同盤子의 銘文中에 重十三斤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中品으로서도 몹시 重量이 무거운 것 中에 속한다고 본다.
實測値는 徑三七cm 側幅六·五m로서 保存이 良好하다.

龍仁 漁肥里의 三層石塔

李 殷 昌

一九六四年 가을에 京畿道 龍仁地方의 佛跡를 調査한 바 二東面 漁肥里 逸石寺址에서 三層石塔 一基를 調査하였는데 參考할만한 것으로 이에 紹介한다.

一、寺址

漁肥里部落의 西便에 있는 田畠一帶가 寺址로 뒤는 山峰을 依支하여 平坦한 臺地를 形成하고 앞으로는 들과 시내를 隔하여 案山과 相對하고 있다. 寺址에는 瓦片和 礎石이 散在하고 발가운데에 問題의 三層石塔一基가 半倒壞의 狀態로 있고 이 石塔 東北쪽에 草屋 一棟이 있어 그 안



에는 頭部를 喪失한 石佛座像 一軀가 있으며 이 草屋 앞에는 石造座臺殘石과 石燈殘石 등이 있는데 이곳 三層石塔과 草屋內의 石佛座像은 漁肥里部落民들의 信仰의 對象이 되며 그리고 保護하

고 있다.

二、三層石塔

石塔은 元來 重基壇과 三層塔身과 相輪部로 形成된 것이는데 基壇部는 埋沒되고 塔身은 第三層屋身이 喪失되었으며 相輪部는 全部 없어졌다. 그런데 現存部分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下層基壇은 埋沒로 未詳하나 下臺甲石의 上面은 鮮麗한 線을 보이는 斜菱線과 直角線으로 된 二層節을 表出하여 基壇上臺 中石을 받고 있다. 上臺中石은 四枚板石으로 짜이었고 各面에 三個童子柱가 있는데 모두 破壞되어 塔體가 東南便으로 기울었으며 南部 一枚는 缺失되었다. 이 上臺中石위에 二枚板石으로 된 上臺甲石을 二字形으로 놓아 高廣한 上層基壇을 造成하였는데 甲石은 下部에 副椽을 造出시키었고 上部는 若干의 勾配表示가 있으며 그리고 上臺甲石 위에 二層節의 「물딩」이 表示되었는데 또 別個石으로 加工한 「屋身괴임」이 施設되었음은 特殊한 點이라 하겠다. 이 「屋身괴임」은 一枚板石으로 下部는 彎曲線으로 되고 上部는 二層節을 이루었는데 이와 같은 初層塔身에 限하여 別個石으로 된 「屋身괴임」을 特設하는 例는 羅末·麗初^①의 石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聖住寺址石塔^②과 普願寺址^③石塔 等に 相通되는 것이다.

塔身은 初層은 長大하고 二層以上은 短縮되어 安全感을 주고 있다. 屋身은 一個石으로 四隅柱가 表示되고 屋蓋 또한 一個石으로 두터운 「屋蓋石받침(持送)」이 四層級으로 統一되고 四區落水面이 平薄하고 曲線勾配를 이루었으며 檐下는 直線이고 四隅角은 笠形反轉을 보이고 있어서 輕快한 情趣를 주고 있는데 이는 新羅石塔의 典型的 通例라 하겠다. 그리고 各層의 屋蓋石의 頂上에 二層級의 屋身괴임이 表示되었으므로 一、三層까지 初層과 같은 樣式으로 造成되었는 바 三層屋身은 없어지고 石燈 仰蓮石이 놓였다. 또 相輪部도 全部 없어져서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없다. 以上 記述한 樣式傾向의 ① 高廣한 基壇위에 適當한 短縮比例로 짜인 塔身을 놓아 安全感을 주는 體貌와 ② 初層塔身に 別個石의 「屋身괴임」들이 特設된 點과 ③ 銳利한 檐下の 直線과 笠形反轉으로 輕快한 感覺을 주는 手法等은 本塔의 特色이며 이 樣式上으로 미루어 보아 新羅末期下